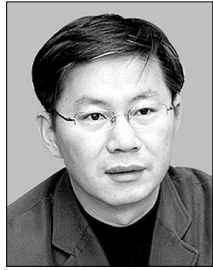


백두산은 한민족의 뿌리이자 민족의 영산이다. 한민족사는 백두산에서 발원했고, 반만년을 이어 왔다. 앞으로도 백두산은 한민족 번영과 동북아의 공존을 지켜 볼 상징적 성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백두산 중국 땅 만들기'를 시도하면서 불자들의 우려가 자못 커지고 있다. 자칫 한중 선린관계와 북중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같은 시도는 당장 중지해야 마땅하다. 역사적으로나 실제적 사실로 봐도 백두산은 한민족사와 함께 해 왔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불자 세상보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백두산도 '삼키는' 동북공정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백두산 개발 사업들이 단순한 관광 진흥 차원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미 백두산을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사업의 순수성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중국은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오는 2018년 제25회 동계올림픽 백두산 유치에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백두산 인접 지역에 국제공항 건설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백두산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일련의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통일 한국을 대비해 현 상태로 국경을 고착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이 같은 시도는 북한이 핵문제와 미사일사태로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심본 활용한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 사태 전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백두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남북한이 정면대응을 하기 어려운 틈을 활용

한 중국의 이 같은 사태 전개는 대국답지 못한 처사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일관되게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을 둔 일방주의적 외교를 비난해왔다.

국제 질서의 냉혹함인가. 이러한 중국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나 역사왜곡에 대한 접근, 중일간 영토문제에서 취한 태도와 너무나 다른 중국의 태도는 대단히 이중적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잣대로 과거사와 현재를 재단하는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시점에서 9월 10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의 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를 우리는 주목한다. 당시 원총리는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답을 한 바 있다. 두 정상간의 언급이 구두선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까 기대한다.

정부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손놓고 있거나 안이하게 대처할 사안 아니다.

정부는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불자들 역시 백두산까지 뻗친 동북공정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우리는 현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어우러진 복잡하고도 속도감 있는 다원(多元)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의 젊은 세대를, 바른 안목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력을 신장(伸張)하며, 조화와 평화의 사회를 구현해가는 인재로 키워나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종교는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며, 인간으로서의 자긍과 자기발현을 돕고, 이웃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면 그 사명을 다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포교와 선교를 위한 '종교교육'이 아닌, 종교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찍이 불교계에서, 인류최초로 인간존엄을 선언하고 자유로 이끄신 부처님의 정신에 따라 여러 학교를 설립했다.

종립학교 '역사'를 '희망'으로

조계종립 동국대학교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금정종 학교는 법어사 금어암에서 문을 연지 100년이 되었고, 광주 정광중학교, 대전 보문중학교, 부산 해동중학교 등이 6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면면히 이어와 뜻깊은 해를 맞은 종립학교들에게 큰 축하를 보낸다.

중·고등학교는 국민 또는 시민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완성하는 단계이다. 이때의 인성교육은 개개인의 평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신교에 비해 종립학교의 수는 현저히 적지만, 긴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종립학교들은 그 명성을 지키며 미래 불교의 희망을 일구는 터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 53.1%가 종교인이고, 22.8%가 불교인이지만, 종교별 구성비에서 불교인구비율은 감소 추세다. 젊은 세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불교종립학교의 역할이 새삼 중요하다. 뜻깊은 100주년·60주년을 계기로 실질적인 청소년 포교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 시대부터 자연스럽게 인간존중 및 평화공존의 불교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배광식(서울대 치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환경시계**

“자연을 이용하기를 끝낼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없듯,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 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을 빼앗아 서도 안 된다.” <법구경>

9월 13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옆에 설치된 '환경위기시계'가 작년보다 12분 빨라진 9시 17분으로 변경됐다. 환경위기시계란 환경전문가들이 인류존속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밤 12시가 되면 인류가 멸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후 6-9시는 '패 불인' 9시 이후는 '매우 불인' 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번 시간 변경은 1992년 환경위기시계가 작동한 이래 최고의 수치로, 인류가 환경파괴로 인한 멸망에 12분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여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환경위기'를 몸으로 체험했다. 우리나라는 46일이라는 유례없는 장마기간 동안 평년 강우량의 2배가 넘는 비가 내렸다. 미국은 불멸 더위로 '폭염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 해에서 발생한 강진은 대형 쓰나미를 일으켜 최소 10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유럽에서도 가뭄과 폭염이 계속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혹서나 사막화현상, 강우량 증가, 잦은 지진 등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환경보호'가 식상한 구호문구로 그쳐서는 안 된다. 내가 선 자리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나부터 1회용품이나 세계 사용을 줄이는 '실천'으로 되살아야 할 때다.

■ 여수령(해재부 기자)

기고 **참선에 대한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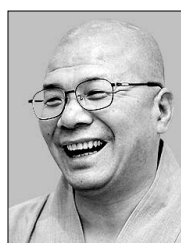
최근 아라한선원에서는 김장웅 무 발과 배추밭 일구는 일을 했다. 귀농생활 몇 년에 접어들어 부부가 도와주어 쉽게 마쳤다. 부인인 보살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참선방으로 끌어들여라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농부생활 몇 년째 접어들어 그는 구릿빛 피부에 농사일도 예사 솜씨가 아니다. 땅을 파고 비닐치는 일이 씨름이다.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사에게 참선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

“농사일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농사지으면 농사일을 잘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는 사람과 지내면 공부도 잘 합니다.”

소설가 김동리씨, 그는 한때 최범평 스님이 주석한 다솔사에 머문적이 있는데 이때 참선을 하려 했으나 다리가 아파서 못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인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 앉아서 좌선을 하려고 하면 다친 다리가 아파서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참선에 대한 오해” 가운데 다리 문제가 제일 크다. 나 역시 참선을 시작할 때 어려서 다친 다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다. 하나 이제 결구부좌가 거뜬히 해결되었다.

다리가 참선을 하는가? 서서 하는 입선, 앉은 좌선, 걸어 다니면서 하는 행선, 누운 좌선 등으로 행주좌와 이룩동정 어



있지 않은가. 햇빛을 보고 땅 위에서 있지 않은가. 아무리 바빠도 호흡하는 동안, 의식이 살아있는 한 참선이 가능하다.

건강 때문에 참선과 멀어진 사람도 많다. 기가 필필 뛰는 활어(活魚)가 참선자의 기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아주 큰 오해이다. 좌선법의 자세를 살펴보면 불로장수의 선도법과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입장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요가법이 들어와 있다. 참선법은 장생불사하는 기의 운동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상허하실(上虛下實· 위로 허하며 아래로 실하고) 수상하화(水上下火· 물기운은 위로 보내고 불기운은 아래로 보낸다).”

상하는 허리띠를 기준으로 삼는다. 불로장수의 법칙은 다음의 소나무 방송(叢松)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온몸이 뜨거워서 건강이 나쁜 사람과 반대로 온몸이 차서 한 여름에도 추위를 타는 사람은 다 같이 기(氣)의 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한다. 이런 사람은 소나무 자세 곧 방송(叢松)을 권한다. 소나무 모양은 선정(禪定)에 드는 가장 좋은 좌선 자세에 비유한다. 소나무도 그냥 평지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가 아니다. 높은 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이다. 가지는 절벽 아래로 길게 내려뜨린 말하자면 이완(弛緩)이 지극해진 상태이다.

이와 반대로 뿌리는 지극하게 긴장(緊張)된 상태이다. 이 소나무가 방송(叢松) 혹은 유송(柳松)이다. 몸을 방송의 자세로 취하고 앉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지묵(수현 아라한선원장)

노력하는 자세·굳은 의지가 '기본'

좌선의 이상적인 체형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노력만하면 얼마든지 자기에게 알맞은 좌선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시대이다.

그 뿐인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운전자가 참선을 하는 방법은 하나의 일정한 형태다. 아무 생각없이 운전만 하지 말고 운전을 하면서 자기 몸을 명명하고 운전하는 그 '주인공'을 돌아본다면 이것 역시 참선이다.

“운전자 시심마(運轉者 是甚摩), 운전하는 자는 무엇인가?”

“누가 이 몸을 운전하는가?”

시간에 쫓겨서 참선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바빠도 숨은 쉬고

'연대' 민영 **심민섭**

이 풍경을 다시 그리면! **도심의 불교사망화**

小寺보다 都를 짓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실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벽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시키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담론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전통따주가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가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점강의)
6. 9월 강좌일
 - 2006. 9.8(금) ~ 10(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사혈기 및 필수 부항·펌프 보시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탄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